

편집 및 발행인 : 김종덕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
총괄 : 최나영환 감수 : 길광수 전화번호 : 051-797-4770 · E-mail : chnayoung@kmi.re.kr / kdong@kmi.re.kr

## Contents

### ● 국제물류 통계

- 주요 대륙 전자상거래 물류시장, 내수 부문이 80% 이상 차지

### ●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
- 알리바바, 베트남 호치민 인근 스마트 물류센터 투자 계획 발표

### ● 유럽 물류시장 동향

- Contargo, 프랑크푸르트-앤티워프 간 철송 서비스 개시

### ● 미주·중남미 물류시장 동향

- 러-우크라이나 분쟁으로 미국 LNG 공급 구조 변화

### ● 공지사항

-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
- “국제물류 정보포털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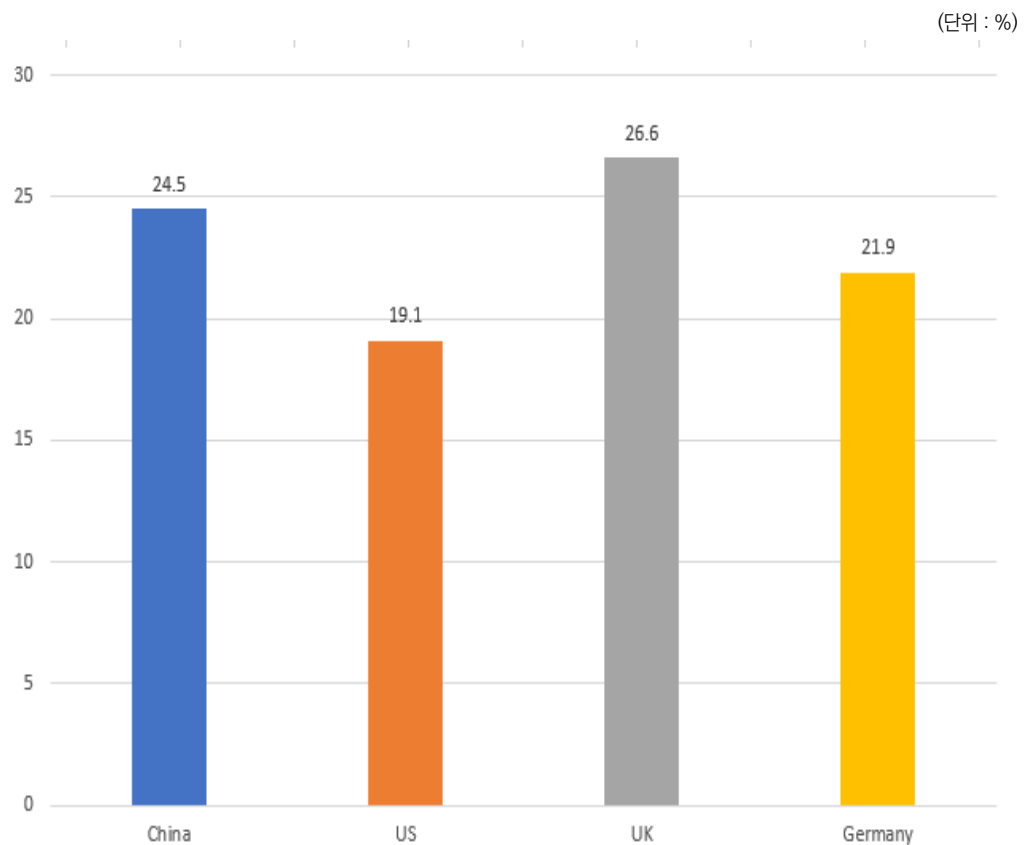


## 주요 대륙 전자상거래 물류시장, 내수 부문이 80% 이상 차지

### 2021년 기준 아시아 태평양, 북미, 그리고 유럽 각 지역의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에서 내수 부문이 80% 이상을 차지함

- Transport Intelligence 자료에 따르면 세 지역의 내수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은 각각 1,545억 6,500만, 1,313억 5,700만, 755억 2,600만 유로로 평가됨
- 지역 내 주요 국가의 내수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중국이 75% 이상, 북미는 미국이 약 97% 그리고 유럽은 영국과 독일이 각각 28.9%와 21.9%를 차지함
- 위 국가의 전체 소매 판매 중 온라인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은 24.5%, 미국은 19.1%, 영국과 독일은 각각 26.6%와 21.9%를 차지함

주요 국가별 전체 소매 판매 중 온라인 비중(2021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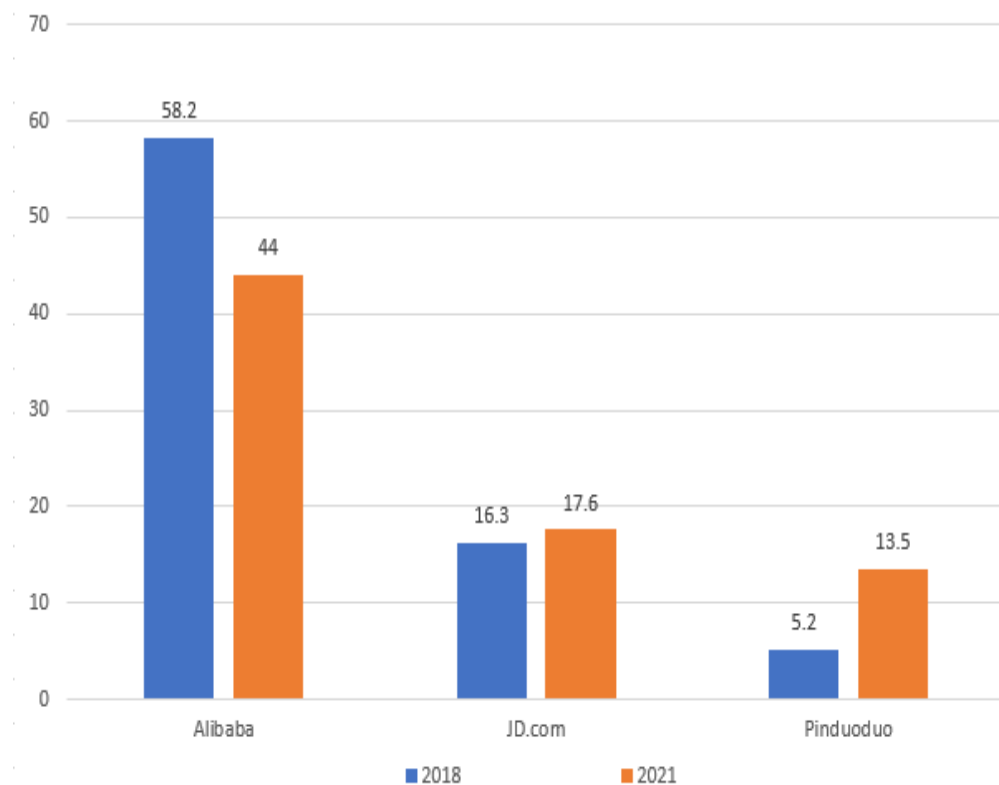
자료 : Transport Intelligence, *Cross-Border and Domestic E-Fulfillment Trends*, 2022.

### ● 중국 및 미국 내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경쟁 양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남

-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가 2021년 3분기 기준 전년도 동기 대비 10%의 매출 증가로 시장 평균 7%를 상회해 중국 내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는 2014년 기업공개 이후 가장 느린 성장세로 JD.com 및 Pinduoduo 등의 후발 업체들에게 빠른 추격을 허용함
- 미국의 경우에는 2021년도 기준 아마존이 전체 내수 전자상거래 판매의 41.4%를 기록해 10%에 못 미치는 2등 업체인 월마트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미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함

중국의 주요 기업별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 점유율(2018년, 2021년)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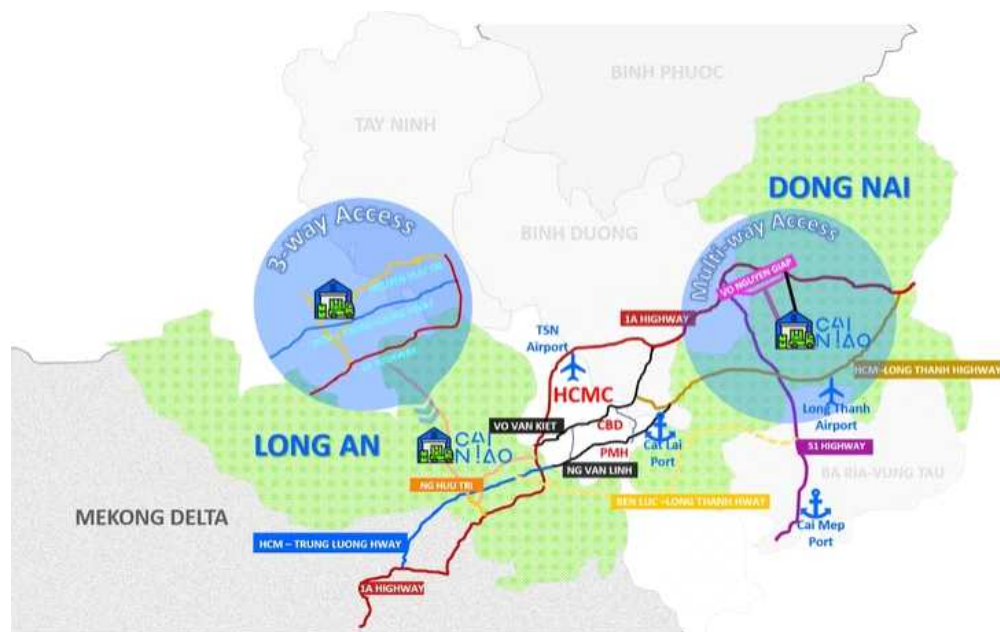
자료 : eMarketer, 2018; 2021.

참고자료 : Transport Intelligence, *Cross-Border and Domestic E-Fulfilment Trends*, 2022.

## 알리바바, 베트남 호치민 인근 스마트 물류센터 투자 계획 발표

- 알리바바가 최근 베트남 호치민 인근 산업단지 내 대규모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함
  - 동 프로젝트는 알리바바의 물류회사인 Cainiao Network가 추진하고 있으며, 베트남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호치민 인근에 위치한 동나이성 산업단지 내에 조성될 예정임
  - 해당 물류센터는 연면적 약 50,000평에 달하는 부지에 창고면적 약 28,000평에 이르는 대형 시설로 공식 프로젝트 명칭은 'Cainiao Dong Nai Smart Logistics Park'로 알려짐
- 동 물류센터는 호치민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요 소비층의 접근성이 높으며, 주요 항만 및 공항과 인접해 있어 물류비 등 운영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점이 있음
  - 물류센터가 조성될 동나이성은 호치민과 약 30km 떨어져 있어 트럭 등 내륙운송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며, 깃라이 및 까이몹 등 호치민 인근 주요 '컨' 터미널을 비롯해 롱탄 국제공항 등 핵심 물류인프라가 인접해 있어 주요 제조 및 생산시설이 다수 존재함
  - 이에 알리바바의 신규 물류센터 또한 섬유·의류 및 가구 등 동나이성의 핵심 산업군을 주요 타겟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며, 보관기능뿐만 아니라 유통센터 및 보세창고의 기능도 수행할 계획임

### Cainiao Dong Nai Smart Logistics Park 입지



자료 : finance.yahoo.com, (검색일 : 2022.4.5.)

- > 코로나19 지속 및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베트남 물류시장 또한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, 이에 알리바바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베트남 물류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전망됨
  -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인해 동나이 산업단지 내 물류센터의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약 95%에 달했으며, 창고이용에 대한 높은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  - 알리바바는 동 물류센터 프로젝트를 시발점으로 베트남 시장에 대한 투자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며, 이는 동나이성의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

## Contargo, 프랑크푸르트-앤티워프 간 철송 서비스 개시

- Contargo(Contargo Industriepark Frankfurt-Höchst)가 4월 4일부터 프랑크푸르트(독일)와 앤티워프(벨기에)를 잇는 컨테이너 철송 서비스를 시작함
  - Contargo는 프랑크푸르트 산업단지에서 컨테이너, 특히 화학 물질을 더욱 유연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송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
  - 프랑크푸르트-앤티워프 서틀은 고정된 일정으로 주 1회 왕복 운행할 예정임
  - 열차의 일정은 매주 월요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해 화요일에 앤티워프의 첫 번째 터미널인 1700번 터미널에 도착하고, 수요일에는 869번 터미널과 913번 터미널을 운행한 후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옴
  - Contargo의 연간 운송량은 210만 TEU로 독일, 프랑스 및 스위스에 25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, 자체 바지선과 철도를 운영함
- 철송 서비스에 의한 컨테이너 배후 물류 네트워크는 프랑크푸르트와 서부 항만 전반에 걸쳐 보다 유연한 운송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음
  - Contargo의 Kawus Khederzadeh 상무이사는 프랑크푸르트-앤티워프 서틀을 통해 이 지역 및 인접 지역의 화주에게 앤티워프 항만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며, 본 서비스는 바지선을 통한 복합 운송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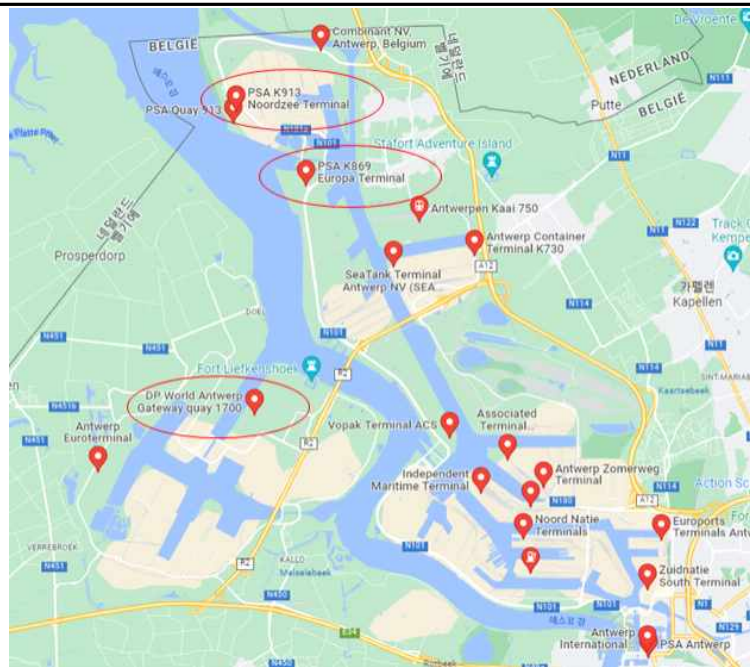
### 프랑크푸르트 터미널 전경



자료 : [https://www.lanthe.com/Contargo-lance-une-navette-ferroviaire-conteneurisee-entre-Francfort-et-Anvers\\_a58929.html](https://www.lanthe.com/Contargo-lance-une-navette-ferroviaire-conteneurisee-entre-Francfort-et-Anvers_a58929.html), 검색일 : 2022.04.06.



## 앤트워프 터미널



자료 : 구글맵으로 저자 작성

- ▶ 동시에 Contargo는 로테르담의 기존 열차 운행 빈도를 높여 프랑크푸르트-로테르담 셔틀을 주당 회에서 3회로 늘림 예정임

참고자료 : <https://www.porttechnology.org/news/contargo-introduces-a-new-eco-friendly-shuttle-from-frankfurt/>, [https://www.contargo.net/en/pressreleases/2022-03-25\\_frankfurt\\_antwerpen\\_shut/](https://www.contargo.net/en/pressreleases/2022-03-25_frankfurt_antwerpen_shut/), [https://www.lanthe.com/Contargo-lance-une-navette-ferroviaire-conteneurisee-entre-Francfort-et-Anvers\\_a58929.html](https://www.lanthe.com/Contargo-lance-une-navette-ferroviaire-conteneurisee-entre-Francfort-et-Anvers_a58929.html), <https://www.usinenouvelle.com/article/fret-ferroviaire-contargo-developpe-une-navette-entre-francfort-et-anvers.N1801542>

## 러-우크라이나 분쟁으로 미국 LNG 공급 구조 변화

-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글로벌 LNG 해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
  - 지난주 American Shipper 저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LNG 해운시장이 즉각적이고 전면적이며 영구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
- 일반적으로 미국 생산 LNG의 30%가 유럽에 공급되었으나 Evercore ISI의 Sean Morgan 분석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두 달 동안 미국산 LNG의 약 70%가 유럽으로 갈 것으로 예측했음
- MarineTraffic의 선박 위치 데이터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LNG 운항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음

###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LNG 선박 경로



자료: MarineTraffic 홈페이지 자료(2022.3.21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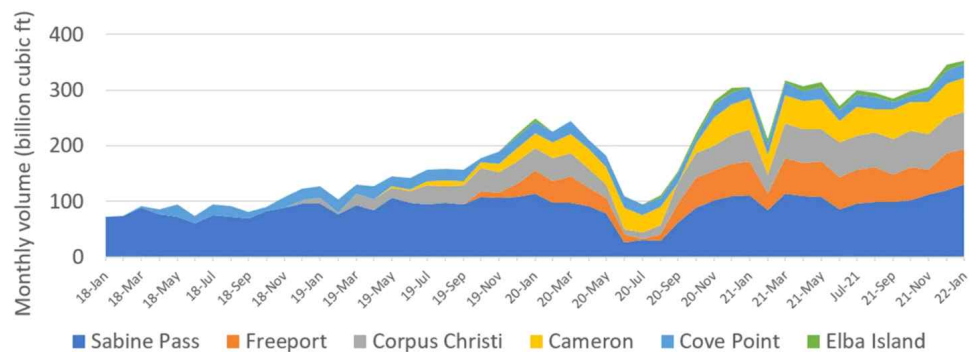
- J.P. 모건은 지난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최근 발표된 EU 에너지 공급 시스템 재구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에너지 소비에 있어 가장 큰 변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함
- 미국의 LNG 수출은 카타르와 호주의 수출보다 목적지 유연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미국은 유럽에게 즉각적이고 가장 좋은 대체 공급원이 될 수 있으나 러시아가 공급해



온 양을 즉각 대처하기에는 부족함

- ▶ 유럽의 수요 증가는 미국 LNG 생산능력 추가 확장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며 J.P. 모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의 LNG 수출 확대를 위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
- ▶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는 셰니에르(NYSE: LNG)의 사빈 패스와 코퍼스 크리스티 시설에서 유럽 전체를 포함해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추가 물량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
- ▶ 미국 에너지 정보국(U.S.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)은 현재 미국의 LNG 수출이 2021년 대비 2022년에 16%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음

미국 LNG 수출량: 2018년 1월 ~ 2022년 1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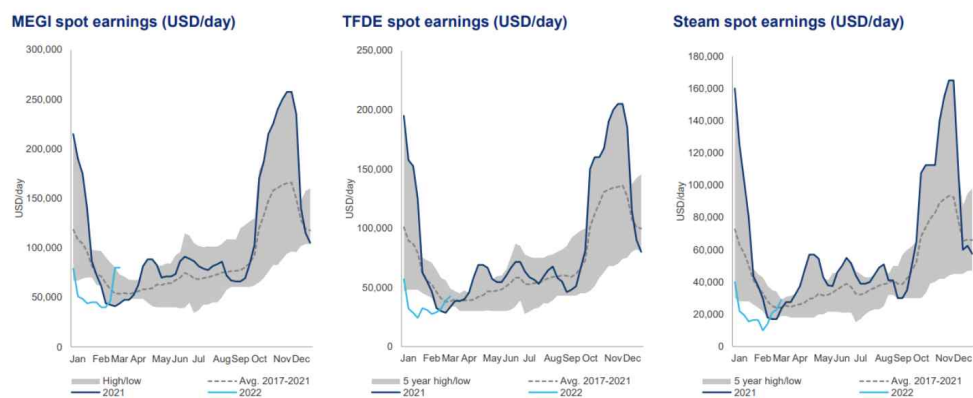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American Shipper based on data from Department of Energy

- ▶ 미국산 LNG를 가득 실은 선박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NG선 현물 운임은 이례적으로 높지 않음

- Clarksons Platou Securities에 따르면 3중 연료, 디젤 엔진(TFDE) LNG 운반선의 현물 운임은 지난 월요일 하루 42,500달러였음
- 이는 2월 중순 최저치인 하루 \$25,000보다 훨씬 높지만, 올해 이맘때의 2017~2021년의 평균과 일치하는 수준으로, LNG 거래가 현물시장이 아닌 장기계약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

## 미국 LNG 수출량: 2018년 1월 ~ 2022년 1월



자료: Clarksons Platou Securities 데이터 참조

- \* 참조: LNG 운반선은 엔진 종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됨
- MEGI(Man Electronic Gas-Injection Engine) 추진 엔진
  - TFDE(Tri Fuel Diesel Electric) 추진 엔진
  - Steam(스팀터빈) 방식 추진 엔진

참고자료 : [www.freightwaves.com](http://www.freightwaves.com), (검색일 : 2022.4.4.)

황선일 부연구위원  
051-797-4675, [shwang@kmi.re.kr](mailto:shwang@kmi.re.kr)

##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

2022년  
해외물류시장  
개척지원  
사업 모집 공고

해양수산부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 
KOREA MARITIME INSTITUTE

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 지원,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·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“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「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」과 「화주·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## 모집기간

2022년 3월 23(수) 09:00 ~ 5월 4일(수) 16:00 까지

## 사업대상

## 1) 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

- 국내 기업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·분석 지원
-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,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(경제, 기술, 재무, 법률 등)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
-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% 보조

## 2) 화주·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

- 화주·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조달, 생산, 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·분석·설계, 시장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
- 최대 4천만원 한도 내 컨설팅 비용의 50% 보조

## 제출방법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www.kmi.re.kr)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 정보포털(withlogis.co.kr)에서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로드 이메일 제출

## 문의처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  
- 최나영환 센터장 051-797-4770, chnayoung@kmi.re.kr  
- 김동환 연구원 051-797-4913, kdong@kmi.re.kr

▶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 
온라인 사업설명회

▶ YouTube **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** 채널을 통해 실시

www.youtube.com/watch?v=g1NNUz8iYQY

## 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### 친구 추가 방법

1. 카카오톡 메인화면  
상단 친구 검색



2. '국제물류 정보포탈'  
검색



3. 친구추가 버튼

